

26 자동차 도장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방광암

성별	남성	나이	56세	직종	자동차 도장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○○○은 약 40년간 여러 곳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. 2015년 8월 육안적 혈뇨가 발생하여 진료를 받았고 방광암을 진단받아 2015년 9월 2일 수술 치료를 받았다. 이후 같은 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2016년 3월 17일 추적검사에서 방광암 재발소견을 보여 2016년 3월 29일 다시 수술 치료를 받았다. 근로자는 약 40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방광암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일을 배웠고, 1년 정도 카센터를 운영한 것 이외에는 약 40년 동안 여러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. 근로자는 주로 도장작업을 수행했지만, 필요한 경우 샌딩작업도 직접 수행했다고 하였다. 1일 평균 도장작업량은 부분품(범퍼, 문, 트렁크, 본넷 등) 기준으로 20~30개 정도를 처리했다고 하였으나, 현장조사에서 사업장 관계자는 1일 전체 작업량이 부분품 기준으로 20~30개 정도 되며, 한 사람이 작업하는 양은 10~15개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.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장작업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현장조사에서는 현재 4명이 도장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.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9시간(9:00~18:00)이었고,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으며,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오전(09:00~13:00)에만 근무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(유기용제)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2년~2015년 일반건강진단 결과에서 경미한 혈당상승(2015년 식전 혈당 114, 그 이전에는 정상 범위)과 비만관리 이외에 특이할만한 소견은 없었다. 2015년 8월 욕안적 혈뇨가 발생하여 진료 및 검사 결과 방광암을 진단받고 2015년 9월 2일 수술 치료를 받았다. 추적검사 결과 재발이 확인되어 2016년 3월 29일 다시 수술 치료를 받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2015년에 방광암을 진단받고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, 2016년 재발하여 다시 수술 치료를 받았다. 근로자는 1972년부터 약 40년간 자동차 수리공장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. 장기간 도장작업과 전처리 작업(연마 등)을 수행하면서 도장용 도료, 희석제, 경화제 등을 취급하였고, 작업내용과 작업형태로 볼 때 현재보다는 노출수준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. 역학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, 도장작업 또는 도장공 자체가 방광암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고, 신청인이 도장작업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방광암이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은 약 40년인데 이는 알려진 잠복기에 부합한다. 따라서 근로자의 방광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. 끝.